

# 역경

한국불교  
역경불사 70년

# 한자 한자 고뇌... 선지식들의 노력

불교계에서는 교유, 포교, 역경을 3대 불사라고 지칭한다. 이 중 역경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경전을 번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현대까지 한국불교의 경전 대부분이 한문으로 이뤄져 있기에 역경 사업은 중요한 과제로 꼽혀왔다. 이러한 역경은 최근에 들어 디지털 화 등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띠고 있다. 한국불교의 현대화를 통해 불교가 쇠락해 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그 중흥을 도모한 것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광복과 함께 찾아온 역경사업의 시작

불교는 우리나라에 있어 외래종교가 아닌 우리문화의 뿌리로 작용되는 만큼 우리말 경전을 갖추는 일은 한국불교의 막중한 사명으로 다가왔다. 고구려를 시작으로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 불전 번역과 해석은 시대에 따라 큰 변화양상을 띠었다.

최초 한글 번역은 세종 때 훈민정음 창제로 시작됐으며 세조 당시 <법화경>과 <금강경> 등으로 이어졌다. 이후 불교 탄압과 함께 선종의 불립문자 선포 등으로 역경에 대한 관심이 적어져 역경불사는 일부 스님들에 의해 근근히 진행됐다.

하지만 광복을 전후해 근현대에 들어서며 역경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개화 이후 한글이 일반인들에게도 보급되며 말 뿐만이 아닌 문자로도 경전을 읽는 바람이 인 것이다. 이를 인식한 근현대 선지식인 용성 스님, 민해 스님, 탄허 스님 등은 역경불사를 진행했다.

## 종단 차원의 첫 역경사업

하지만 광복 이후 진행된 개인적인 역경은 대장경과 같은 다양한 분야와 광대한 양을 소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종단적인 역경불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1950년대 불교정화운동 이후 1962년 출범한 통합종단은 역경을 3대 사업으로 책정하고 이해 역경위원회를 설립했다. 초기 역경위원회는 6개 분과로 나누어졌다. 기획에는 석주 스님, 번역에 운허 스님, 중의에 자운 스님, 율문에 범정 스님, 운영에 범룡 스님, 유통에 석정 스님 등 당대 내노라 하는 스님들이 참여했다. 이 중에는 이름을 올린 스님뿐만 아니라 활발히 활동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통합종단은 만성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다. 때문에 역경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 법이 제정되고 역경위원 진용까지 갖추었지만 예산이 편성돼 실제 실행에 들어간 것은 1963년부터다. 종단에서 역경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처음 편성된 것은 1963년 11월 18일 열린 제5회 정기중앙총회이다.

이런 가운데 1963년 6월 <우리말 팔만대장경>이 출간됐다. 이는 일부를 간추린 불교성전 형태였다. 대한불교청년회가 '성전발간준비위원회'를 결성해 1962년 4월부터 추진한 불사로 편찬위원 대부분이 역경위원들이었다. 즉, <우리말 팔만대장경>은 근현대 불교계 전체가 역경불사에 나선 결실이었다.

역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재원마련을 위한 후원회가 결성된다. 먼저 지리산 묘목을 재배하던 지환 스님의 농원을 재원으로 결성된 범문회와 울산 중

현 스님 등이 후원에 동참했다.

하지만 기구는 만들었지만 분규와 부채에 시달렸던 조계종은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동국대 산하로 역경원을 두기로 했다. 당시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법인이어야 하는데 조계종단의 형편으로는 무리였다. 이에 동국대 산하에 기관을 둔 것이다. '동국대 부설 역경원'이 아닌 '동국역경원'이라고 한 점은 독립법인을 할 때를 기한 것이었다. 그 때 마침 정부에서 고전역사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이었다.

## 동국역경원의 탄생

역경위원회는 1964년 7월 동국역경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964년 동국대 부설 동국역경원이 설립된다. 초대 원장은 운허 스님이 맡게 된다.

동국역경원이 발족될 당시 역경사업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열의는 대단했다. 그 취지문을 보면 동국역경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 통합종단 3대 역점 사업 '역경'

1964년 동국역경원 출범, 석학 대거 참여

2000년 <한글대장경> 184책 완간 결실

빨리어 경전 번역 초기불교 황실화 계기

개역 및 디지털화, 역경사 양성 과제

간지스 강변에서 잠엄하게 울려 퍼지던 부처님의 목소리가 메아리 친지도 아득히 천육백년! 최근에 이르러 역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짙어지고 있음에 따라 몇몇 경전들이 옮겨지고 있으나 그 것은 아무런 계획성도 없는 질서 이전의 작업에 지나지 않는다. 간지스 강변에서 메아리친던 그 때의 그 뜻을 귀에 익은 오늘의 우리 목소리로 바꾸어 돌려주자는 것이다. 겨레의 가슴의 이 뜻을 전한다.'

이후 동국역경원에서는 1965년 6월 한글대장경 제1집 <장아함경>을 간행한 이래 2001년 해인사 소장 팔만대장경을 한글로 완역했다. 지속적인 역경사업에도 역경불사에 동참한 이들의 생각은 하나로 귀결됐다. 바로 역경인재 양성이었다. 역경을 전담하는 인력을 키워내는 것은 지속적인 역경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선결과제였다.

## 역경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

당시 역경불사는 고려대장경과 고려대장경에 포함되지 않는 삼장경과 한국고승찬술불서를 모두 번역



2010년 10월 7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열린 <인본육생경> 시역고 강평회에서 스님들이 번역본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역경에서는 이처럼 한두사람에 의존하는 데서 탈피해 교차 검증 등을 통해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하려던 최소 50년이 걸린다고 보았다. 당시 역경위원들은 대부분 50세를 넘은 상태였다.

조계종은 1966년 수원 용주사에 역장을 설치하고 1967년 5월 22일 제1기 연수생 10명을 선발했다. 연수생들은 30:1이란 경쟁률을 뚫은 수재들이었다. 출가자 5명, 재가자 5명으로 구성된 이들로 무비 스님을 비롯해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 월인 스님(법주사), 송원 스님(서울 정각사), 주인 스님이었으며 재가자는 권영대 전 단국대 교수, 이민식 한국학연구원 전문위원, 송성주, 채영일, 이재수 씨 등이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역장을 든든히 후원했던 관음 스님이 용주사 주지에서 물러나며 역장은 용주사에서 철거된다. 1969년 종단은 역장을 개운사로 이전 토록 결의했으나 개운사 측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1971년 봉은사에 역장이 변경 지정됐고 2기 연수생을 받았지만 얼마못가 문을 닫게 된다. 봉은사가 사찰토지문제로 내용을 겪으며 역장 운영에 난색이 생겼기 때문이다. 1년 반의 연수과정을 거친 9명에게는 연수증이 주어졌다.

역경불사의 인재양성을 위한 역장과 마찬가지로 동국역경원도 재정부족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국고 보조금에 의존했기 때문이었다. 1966년 매년 1300만원씩 72년까지 지원 받기로 결정돼 77년까지 총 7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기간 동국역경원은 매년 7~8권의 <한글대장경>을 번역 출간했다. 하지만 1980년대 지원이 끊기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어 1980년 11월 역경불사의 원을 세웠던 운허 스님이 입적하자 역경원은 위

기에 부딪친 것이다.

역경불사에 원을 세운 이들은 법인이 필요하다고 여겼으며 1984년 11월 동국역경사업진흥회가 발족됐다.

이후 1993년 운허 스님의 상좌인 월운 스님이 동국역경원장에 취임하고 1994년부터 4년간 정부가 지원을 하며 다시 활기를 띄었다. 월운 스님이 앞장서 1995년 동국역경원후원회가 만들어져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정부 지원과 함께 94년에 26책의 <한글대장경>이 간행됐으며 95년 28책, 96년 32책, 97년 30책 등 4년간 총 116책이 간행됐다. 그럼에도 고려대장경의 번역불사는 큰 일이었다. 정부의 추가 지원과 동국대 및 후원회 지원 등으로 총 184책의 <한글대장경>이 2000년 36년만에 완결된다.

현재 동국역경원은 동국대 교책연구기관인 불교학술원 산하기관으로 있으며 기획부와 편집부, 상임연구원 등을 두고 있다. 한글대장경을 완간한 현재 역경원은 불교고서 번역을 비롯해 콘텐츠를 인터넷 자료로 제공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역경 예규의 제정과 번역사업

1960년대 이후 역경불사의 가장 큰 성과는 역경예규를 제정한 데 있다. 번역을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하기에 이 규칙에 따라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한글대장경>을 편찬하며 국어학자인 외솔 최현배, 일석 이희승 박사 등의 동참 하에 운허, 범정, 서경수 교수 등은 역경예규를 제정한다.

'문장은 구어체 현대문을 사용한다' '문장은 순한 글로 쓰되 고유명사나 범어, 번역하기 어려운 술어는 해당 한자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등으로 지금도 범어표기법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차로 한자음을 그대로 따라적는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 표기법은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이었다.

또 중요불교용어 270개(후추 600개로 늘어남)를 우리말로 풀어썼다. 죽살이(생사), 바귀돌이(윤회) 등 현재는 사장되어 쓰이지 않는 말들이 많지만 한글화에 대한 제정 당시의 노력과 열정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 불교 각계에서의 역경불사

1990년대에 들어 중앙승가대가 역경불사에 뛰어든다. 중앙승가대는 1993년 역경사를 양성하는 불전국역연구원을 설립하였다. 이후 교양강좌에도 역경분야를 도입하고 현재 역경학과를 개설해 인재양성에 나서고 있다.

조계종 차원에서는 지관 스님이 총무원장 재직시절인 2006년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를 발족시키고 원효, 의상, 지눌 스님 등 한국 대표 고승 문집 90여 종을 선별한 <한국전통사상총서>를 편찬했다. <한국전통사상총서>는 한글번역과 함께 영역도 함께 진행됐으며 '다자간(多者間) 번역시스템'을 도입해 정확하게 번역하려 노력한 첫 사례였다. 번역자 한두 사람에게 의존하는 기존 관행을 탈피해 공동으로 번역과 교정 작업을 진행했으며, 한글역자와 영역자가 교차 검토하고 검증하면서 국내외 연구성과

##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국내를 비롯하여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불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군소종단의 통합을 염원하며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한국 군소종단들의 모임체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됩시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종단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마음에 뜻이 같지 않으면 순식간에 등 돌리고 무리져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부실종단 지도자들은 더 이상 먹물 옷을 욱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실종단이 난립하니 승려의 자질과 역량이 사회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수행자의 출현이 아쉽다는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상과 독선, 옹고집 명예와 권력야욕 벗어 던져 버리고 **이제는 초발심으로 돌아가 종단은 다르나 모임에는 통합되고 단결된 종단들이 되어 불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다져야 합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불교에 누를 끼치는 종단에서 벗어나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주역이 됩시다. 가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단 정식 법인 등록된 종단 및 단체가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 高僧長老團.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부다보사단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팩 스 02)733-5615, H.P : 011-229-6061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그늘진 곳에 같이 웃고 같이 울며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봉사단 불자를 모십니다.

**불자라면 남,녀 누구나 환영합니다.**

# 역경

한국불교  
역경봉사 70년

# 바른 신행·불교 대중화 주춧돌



1964년 7월 21일 동국역경원 개원식 당시 모습. 운허, 석주, 법정 스님 등 당대 선지식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1972년 11월 발간된 우리말 <불교성전> 관련 기사



2011년 7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한국전통사상총서> 봉정식. <한국전통사상총서>는 교차검증을 비롯한 공동번역의 산물이었다.



2012년 11월 열린 4부 니까야 완간 기념회를 연 초기불전연구원의 각목 스님(왼쪽)과 대림 스님

를 최대한 반영했다. <한국전통사상총서>는 2011년 7월 우리말본으로 13권에 이어 2012년 영역본까지 출간됐다.

이와 함께 <표준금강경> 또한 편찬됐다. 1924년 용성 스님이 한글로 번역한 금강경 이후 100여 종이 넘는 한글금강경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불학연구소의 주도하에 2년 간의 학술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2009년 1월 20일 편찬됐다. <표준금강경> 편찬은 개인이 아닌 공동번역의 결과물로 번역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여러 번의 윤문 단계를 거쳤다는 의의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글경전번역사상 처음으로 운문화를 시도했다는 점은 가장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다양한 곳에서 역경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역경분야에도 발전을 이끌었다. 그동안 자료수집과 번역자료 공유 등에 난항을 겪었던 역경불사에서 인터넷은 큰 힘이 되었다. 역경사업과 함께 1993년에는 대장경의 디지털화를 위해 고려대장경연구소가 발족돼 전산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 barriers 번역 돌입

한문경전 번역과 함께 초기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198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 일본 불교학자

들의 저서를 재번역하는 단계였지만 1987년 선방 수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고요한 소리'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꾸준히번역한 책들을 보급하고 있다. 스리랑카 불자출판회에서 간행되는 <보리수 잎>, <법륜>, <금구의 말씀> 등을 펴냈다. 이들 책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인도 등에서 유행했던 스님과 불교학자들이 귀국하였으며 유럽과 미국에서 초기불전 연구에 필요한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등을 습득한 학자들이 동참하며 초기불전 번역이 활기를 띠었다. 전재성 박사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빠알리성전협회도 초기불전 번역의 중심 역할을 했다. 1989년부터 초기불교 원전 번역의 원을 세운 전재성 박사는 1997년 세계빠알리성전협회 회장인 리차드 콕브리지 박사의 승인을 받아 한국협회를 열고 10여년간 역경사업에 매달려 빨리 4부 니까야와 함께 빨리 출간 등을 번역했다.

2002년 빨리 삼장의 한글 완역을 발원하고 세워진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은 원장 대림 스님과 각목 스님이 2005년부터 5개년 계획을 3차로 진행하고 있다. 1,2차를 진행해 다가 니까야 등 4부 니까야와 논장 등과 함께 <아비담마의 길라잡이> <들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를 펴냈다.

### 역경의 현대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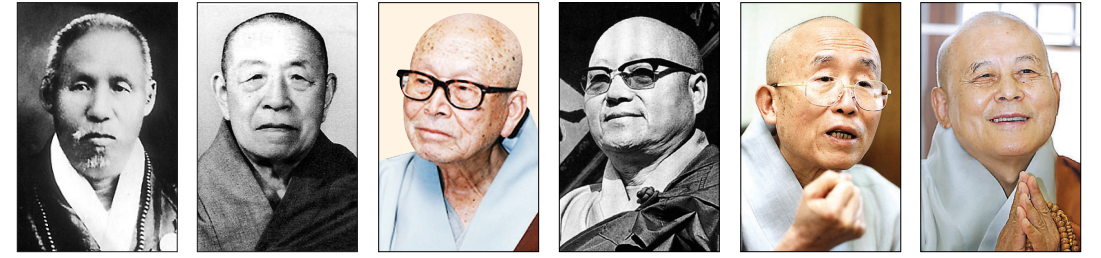
한국불교계가 역경봉사를 시작한지 50년이 흐르는 동안 시대에 따라 역경의 방식도 변해왔다. 한글 대장경 또한 개역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현대시류에 맞는 역경사의 양형, 역경의 디지털화 등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

동국역경원에서 완간한 한글대장경은 다시금 현재의 언어로 재구성돼야 한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과제에 앞서 언어 표현을 통일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문을 단순히 한글로 옮기는 데서 벗어나 다양한 현대적 언어로 해석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일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 교육원과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2006년부터 교육협력을 체결해 한국불교융복합학(일반대학원 과정)과 불교한문어학(가톨릭대)을 신설해 한문불전 번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 불교학술원은 ABC사업을 통해 불교기독교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해나가고 있다.

그동안의 역경봉사가 국고지원에 의존해온 만큼 동국역경원의 역경후원회 활성화를 비롯해 각종 후원조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범보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또한 불교계의 남은 과제다.

### 한글 역경에 앞장선 선지식 스님들



#### 용성 스님

이 중 용성 스님은 한글화에 앞장섰다. 용성 스님은 독립운동을 하다 투옥됐을 때 성경을 비롯한 타종교의 서적이 모두 한글로 번역된 것을 보고 한글 역경에 앞장섰다. 1921년 4월 역경을 전문으로 하는 삼장역회(三藏譯會)를 조직했다. 삼장역회는 첫 한글판 <금강경>을 출간하고 이후 <심조만유론>과 <신역대장경>, <수심정로>, <선문활요편집의역>, <대방광불화엄경> 등 수많은 한글경전을 펴냈다. 용성 스님의 수많은 한글 번역본은 현재 법손인 보광 스님이 대각사상연구원에서 총서 발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 운허 스님

젊은시절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운허 스님은 상해 임시정부와 관계가 있었으며 관련 인사들과도 교류가 있었다. 광복 후 운허 스님은 봉선사 스님들을 모아 놓고 이제 해야 할 일은 조국을 이룰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라며 학교 건립의 뜻을 모았다. 1946년 4월 8일 광동학교가 문을 열었고, 스님은 초대 교장에 취임한다.

1950년 전쟁 발발이후 범여사, 해인사 등에게 교학을 강의한 스님은 1957년부터 역경봉사에 본격적으로 매진했다. 석주 스님과 법보원에서 1961년 최초 우리말 <불교사전>을 편찬했고, 1962년 대장경 번역의 책임을 맡아 한국불교 역경사에 빛날 업적을 남겼다. 스님은 1964년 동국역경원 초대원장, 역경위원장 책임을 맡아 역경봉사의 토대를 닦았다.

#### 석주 스님

강원 재학시절부터 우리말 경전의 필요성을 절감한 석주 스님은 1949년 선학원에서 한글선학간행회를 세우고 <선가귀감>을 발간데 이어 1961년에는 운허 스님과 의기투합해 법보원을 설립했다. 당시 법보원 운영과 재정은 석주 스님이 책임졌고, 운허스님은 경전한글화를 담당했다. 앞서 운허 스님은 1950년대 들어 강원 교육에 필요한 책들을 비롯해 울장을 한글화 하는 작업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었다. 스님과 운허 스님은 최초 우리말 <불교사전>을 펴냈다.

이 책에는 강원 학인들과 불교를 처음 연구하는 이들을 위해 만든 것으로 간단하고 알기 쉽도록 해석했으며 1만6000여개의 표제어를 담고 있다. 운

허 스님과 석주 스님의 원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1980년까지 한글 대장경이 80권 출간됐는데 완간된 대장경이 318권인 점을 감안하면 경이로운 수준이다.

#### 탄허 스님

탄허 스님은 전통강원에서 사용하는 초발심자경, 치문 등의 사경, 사교, 대교를 한글로 번역해 강원교육의 한글화에 앞장 섰다. 특히 화엄경과 관련된 방대한 저술을 집대성해 우리말 <신화엄경합론>을 출간하는 데에만 17년을 몰두했다. 스님은 사회 통합의 해결책으로 화엄 사상을 강조했다. 또한 70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경전을 역경하고 주석함으로써 현대 한국불교교육의 토대를 바로 세웠다. 탄허스님은 조계종 초대 중앙역경원 원장, 동국역경원 초대역경장(譯場長), 동국대학교 대학선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상좌인 혜거 스님이 스님의 원을 잇고 있다.

#### 월운 스님

운허 스님은 은사로 출가한 월운 스님은 역경원 개원 때부터 30년간은 번역위원으로, 이후에는 원장으로 해인사 장경각 속 팔만대장경에 담긴 부처의 뜻을 한글로 널리 퍼내는 일에 매달려 온 역경사업의 산역사라 할 수 있다. 월운 스님은 제4대 공국역경원장으로 취임해 운허 스님의 원력을 이어 1994년 정부지원을 받아 2001년 한글대장경 318권을 새롭게 탄생시켰다. 이뿐만이 아니라 역경후원회를 조직해 기반을 닦았다. 월운 스님은 이후 고래대장경의 디지털화에도 깊이 관여했다.

#### 지관 스님

대표적인 학승으로 꼽히는 지관 스님은 역시 역경봉사에 깊이 관여한 자운 스님(제3대 역경원장)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금석본 번역과 계율 역사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스님은 <한국사상총서> <표준 금강경>을 비롯해 1991년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설립해 불교문화 사상 전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한 <가산불교대사람>과 <역대고승비문총서> 등을 편찬했다. 이중 <가산불교대사람>은 불교대사전으로 15만권의 항목을 담은 대규모 편찬본이다. 여기에는 불교의 다양한 고전번역과 대장경 편제 전통에 따른 것으로 2019년까지 총 22권이 출간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JJUN Heating System Module**

“**조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축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축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축온수난방 SYSTEM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  
서울 : 010-5097-8291  
평창 : 010-6433-8612  
김천 : 010-9091-4583  
북광주 : 010-3641-0605  
여수 : 010-3612-7784  
수원 : 010-5211-7260  
서산 : 010-7301-5854  
진주 : 010-3583-7139  
서평주 : 010-6890-0365  
고성 : 010-4578-0961  
남양주 : 010-9183-9729  
양산 : 010-6294-6126  
울산 : 010-4597-5577  
익산 : 010-6610-2337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사찰 연등 및 전선(범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3구 인치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일지야형 S형 T분리형 LED야형 LED줄타형 관전지 초

▶ 방생, 탐불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 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